

## 특필기고 판문점 코드와 남북통일 三八을 알아야 산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 후 판문점이 뜨고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온통 판문점 회담으로 도배가 될 지경이다.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이래저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격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후 73년간이나 38선에 막혀 서로 오가지 못한 만큼 그 막혔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회담이라 더욱 그럴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문제가 직결되고 나아가 세계 평화 및 주변 국제정세의 대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 때일수록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머리는 차가운 냉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나 주점의 점(店)을 써서 판문점이 되었다고 한다. 판문점은 북위38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될 때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옴에 따라 38도선을 기준으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기한 것은 500

년 전 격암 남사고 선생이 저술한 격암유록의 삼팔가(三八歌) 가운데 판문점을 의미함 삼팔선으로 막혀 좌(左)우(右)가 서로 원망하게 되니 한심한 일이로다. 경인년(6.25전쟁이 발생한 해)에 빨갱이(牛人=朱 붉을 주) 공산당이 분발하여 삼팔선을 깨부수어 역사할 때 응(南)과 백(北)이 서로 싸운 결과 용이 패하여 남쪽에서 신을 하더라. 용이 한 번 일어나 삼팔선이 없어지면 가을밤 밝고 둥근달이 뜨는 삼팔의 때이로다. 가을은 신유술(申酉戌)을 말하며(봄은 寅卯辰, 여름은 巳午未 겨울은 亥子丑이다.) 옥등은 15야(夜) 보름달이니 곧 15眞主(진주, 정도령=진짜 구세주) 아래 왼쪽으로

**판문점: 널문리를 한자 표기한 것**  
 판문점의 옛 이름은 널문리이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가던 중 임진강을 건널 때 마을사람들이 널빤지 문을 떼어 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널문이라는 지역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說)이 있다. 6.25전쟁 때 휴전회담이 열린 곳이 널문리였고 주막을 겸한 조그만 구멍가게 앞이었다고 한다. 휴전협상을 할 때 중국어로 표기하려다 보니 널 판(板), 문 문(門), 가게

**十線反八 = 十에 反, 八을 더하면 = 板**  
**兩戶亦是 = 戶가 둘이면 = 門**  
**無酒酒店 = 酒店에서 酒배면 = 店**

## 오른쪽 위에서 격암유록: 핵무기가 먹거리로 변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를 상징한다. 가을의 달은 술(戌)월의 달이 옥등처럼 가장 아름답다. 삼팔은 동방갑을삼팔목(東方甲乙三八木)을 의미하며 일(日)은 시간대를 말한다. 이는 정도령(구세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일의 그날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장면(좌) 대륙 핵 지원을 위해 선적하고 있는 모습(우)

이와 같이 50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은 격암유록에서 지난 세월의 역사를 상세히 전하고 판문점을 이미 암호로 감추어 두었고 나아가 통일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삼팔은 곧 동방갑을삼팔목(東方甲乙三八木)이니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과 또한 전 지구적 운명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게 강대국의 역할이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가지만 뒤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천지운행도수와 때에 맞추어 정도령(구세주 하나님)이 천지공사를 함으로써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졌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격암유록의 주인공은 정도령=구세주 하나님이며 언제 어디서 출현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등의 천지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 오선위기(五仙圍碁)도수에 붙인다

백 수십 년 전(前)의 강증산 선생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오선위기(五仙圍碁)도수에 붙인다고 하였다. 내용인즉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다른 두 신선은 혼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손님 대접만 잘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해가 저물어 바둑을 마치고 판이 끝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이 서로 실력을 겨루는 일을 그렸다. 여기서 바둑판을 자세히 보면 가로로 19줄이요 세로로 19줄이라 합이 38선이 되는 것이니 이 역시 삼팔에 천하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고 먹거리로 바뀌는 내용도 있다.

### 때를 놓치면 죽는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이 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무리 힘들여 노를 저어 봐야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너무나 힘이 들어 다 나가떨어지는 것이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노 젓는 법을 정성껏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를 모르니까 더욱 힘만 들고 얻은 결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격암유록에서는 선입자망(先入者亡)이라 했고, 물이 빠진 후에 가서 늦게 급한 마음에 노 젓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노를 힘들여 저어봐야 배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격암유록에서는 말입자사(末入者死)라고 하였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부지런히 노를 저어 건너가야 할 때이다. 이를 격암유록에서는 중입자생(中入者生)이라 하였으니 중입자만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는 삼팔선의 판문점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놀랄만한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구경하고 그저 뉴스만 따라 갈 일이 아니다. 작년 후반에만 해도 곧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국면이 180도 전환되어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 통찰력과 함

의 미사일 발사 장면(좌) 대륙 핵 지원을 위해 선적하고 있는 모습(우) 고 먹거리로 바뀌는 내용도 있다.

‘때를 놓치면 죽는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이 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무리 힘들여 노를 저어 봐야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너무나 힘이 들어 다 나가떨어지는 것이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노 젓는 법을 정성껏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를 모르니까 더욱 힘만 들고 얻은 결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격암유록에서는 선입자망(先入者亡)이라 했고, 물이 빠진 후에 가서 늦게 급한 마음에 노 젓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노를 힘들여 저어봐야 배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격암유록에서는 말입자사(末入者死)라고 하였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부지런히 노를 저어 건너가야 할 때이다. 이를 격암유록에서는 중입자생(中入者生)이라 하였으니 중입자만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육도삼략의 4도 63궁 火雲 강증산 선생에 이어 5도 72궁 木運 하늘의 사 람은 배를 타고 건너간 자에게 할 말이 있지 건너가지 못한 자에게는 할 말이

팔(無酒酒店三八)이니 삼자각팔삼팔(三字各八三八)이라. 일선성태삼팔격(一鮮成胎三八隔)에 좌우상망한심사(左右相望寒心事)요 양호우인분발하(兩虎牛人奮發下) 파쇄삼팔역사시(破碎三八役事時)에 용사상투패룡하(龍飛相擊龍下吟) 용일기무삼팔(龍一起無三八)에 옥등 주야삼팔일(玉燈秋夜三八日)을.

십(十), 반(反), 팔(八)을 합하면 판(板) 자로서 삼팔선에 있음이요 두 개(양兩)의 쪽문(호戶)은 문(門)으로서 역시 삼팔에 있으며 주점(酒店)에 주(酒)가 없으면 점(店)으로서 삼팔에 있으니 판문점(板門店)이란 석자 각기 팔(八)획으로 삼팔이 되도다. 하나의 선이 생겨나(해방 후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됨을 의미함) 삼팔선으로 막혀 좌(左)우(右)가 서로 원망하게 되니 한심한 일이로다. 경인년(6.25전쟁이 발생한 해)에 빨갱이(牛人=朱 붉을 주) 공산당이 분발하여 삼팔선을 깨부수어 역사할 때 응(南)과 백(北)이 서로 싸운 결과 용이 패하여 남쪽에서 신을 하더라. 용이 한 번 일어나 삼팔선이 없어지면 가을밤 밝고 둥근달이 뜨는 삼팔의 때이로다. 가을은 신유술(申酉戌)을 말하며(봄은 寅卯辰, 여름은 巳午未 겨울은 亥子丑이다.) 옥등은 15야(夜) 보름달이니 곧 15眞主(진주, 정도령=진짜 구세주) 아래 왼쪽으로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3> “입술 잘못 놀리면 지옥을 면할 수 없다”

세상 말을 입에 담고, 형제 말이 아니고, 형제의 흉이나 보고, 자기가 의인도 아닌 주제에 뭘 아는 척하며 형제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짓을 하게 되면, 그는 그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영원무궁토록 불구덩이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입에 재갈을 물어야 의인이 되고, 재갈을 물어야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재갈을 물지 아니하고 이 형제 말, 저 형제 말을 입에 담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이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찌는 건 다른 사람 가는 길을 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 사이 나 사이로 살아야 은혜가 간직이 되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드루킹 사태와 격암유록·송하비결·정감록의 트루킹(True King)·십승지 정도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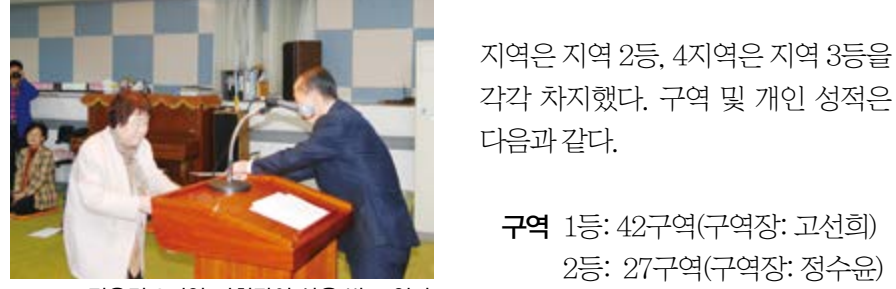
포털사이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네티즌 ‘드루킹’ (druking)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25 전쟁, 4·19혁명, 5·16, 박정희 암살, 전두환 등장, 5·18, 북한 핵문제, 노무현 당선에서부터 시작해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패배까지, 미국의 대의 노선은 더욱 강경해지고 북·미간 산발적인 군사 충돌은 2006년 까지 계속된다. 2006년 북한 난민이 남한으로 대거 밀려들고, 질병이 창궐하고 국내 좌우파의 대립이 극심해진다.”

‘한 반도 미래 관련 비결 해석으로 뜬 드루킹 십승지를 십자선으로 풀며 한반도 국제정치 중심지라고 해 진짜 십승지는 구세주임을 알아야 한다.’

할 내용은 ‘드루킹’이 마법같은 위역이 되고 국제 정치의 중심 역할, 전략적 요충지라 불리는 것이다. \*  
 과연 그럴까? 격암유록 십승론(十勝論)에는 “弓乙之問十勝地(궁을지 간십승지)를 講山之中(제산지중) 넘나들며 不求山中(불구산중) 찾지 말고 三峯山下半月船泊(삼봉산하반월선대) 極求心中(극구심중) 차지보소”라고 기록하고 있다. 십승지(十勝地)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무야’의 해탈경지에 도달한 극기승자 태로 적시한 예언서이다. 처음 이 예언서를 접해보니 2004년부터 한반도가 난세에 휩싸이게 되고 한반도 전쟁, 괴질 창궐 등 말세 현상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를 알려서 준비를 하고 경계를 삼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닦길 수 있는 환란에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송하비결>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국민의 의지와 민족의 지혜를 모아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송하비결>과 <정감록>, <격암유록>을 비교연구하기도 했는데 귀중한 공통분모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들 예언서 모두 미래의 한

## 3지역 2개월 연속 1등 개인 1등 정수훈 승사



정은경 3지역 지회장님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4월 활동 성적을 발표한 결과 3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했다. 5

- 지역은 지역 2등, 4지역은 지역 3등을 각각 차지했다. 구역 및 개인 성적은 다음과 같다.
- 구역 1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2등: 27구역(구역장: 정수훈) 3등: 21구역(구역장: 안병숙)
- 개인 1등:** 정수훈 승사 2등: 강춘희 권사 3등: 고선희 권사\*